

문의: 경제정책실 김현수 실장(010-3751-8953), 조성환 팀장(010-9007-0315), 이원준 연구원(010-6822-7547)

## 생산비 증가 → 은행 대출 증가 → 고금리 이자... 기업 자금난 악순환

- <商議 조사> 현재 자금조달 수단은 ‘은행 대출’(64%) ... “이자부담 크지만 은행 문 두드린다”
- 이자부채 감당여력 1년새 ‘급락’ ... 2분기 현금흐름보상비율 45.6%로 전년동기 대비 **43%** 하락
- 자금운용 리스크도 ‘대출금리 상승’(73%)이 1위 ... 외화차입 부담(25%), 금융대출難(18%) 順
- 주요국 대비 기업부채 증가 속도 빨라 ... 상의 “대출금리 안정화, 다양한 자금조달 길 열어줄 필요”

경북 소재 중소 식품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수입산은 물론이고 국산 식재료 가격이 올초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55%까지 올랐고 일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 이자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답답하다”며 “그나마도 자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과 금융기관을 찾는 게 일상”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은행 문을 두드리고,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은 배로 커지고, 다시 자금사정 악화되고 ...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64.1%)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23.9%), ‘주식·채권 발행’(7.1%) 순으로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표1> 기업의 1순위 자금조달 수단

조달 수단	은행·증권사 차입	내부 유보자금	주식·채권 발행	정부지원금	사금융 차입	기타
비중	<b>64.1%</b>	23.9%	7.1%	3.1%	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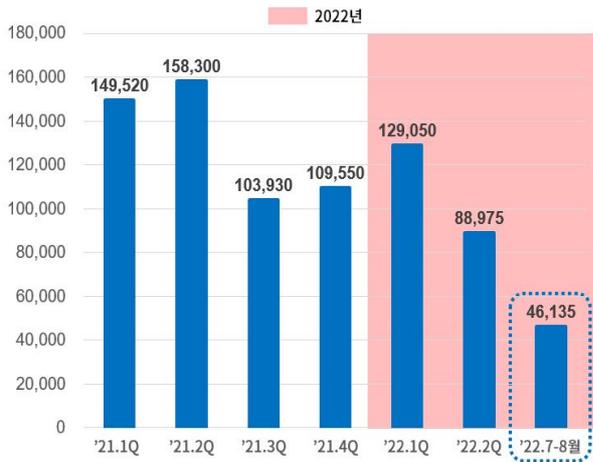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자금조달 수단’ 역시 ‘은행·증권사 차입’(64.4%)이 가장 높아  
 - 회사채 발행 급감 등으로 ‘은행대출 의존도’ 높아져 ... ‘주식·채권 발행’ 늘린 기업은 3.3% 불과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조달 수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4.4%의 기업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선택했고, ‘내부 유보자금 활용’ (32.2%), ‘정부지원금’ (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채권 발행’을 꼽은 기업은 3.3%에 불과했다.<사금융 차입 3.0%, 복수응답>

실제로 최근 회사채 발행규모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1분기 12조 9,050억원 → 2분기 8조 8,975억원 → 7-8월 4조 6,13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13.7%, 2분기 기준 -43.8%이다. 설령 자금조달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데, 일례로 만기 3년 BBB- 회사채 금리는 시장 불안심리 확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초 8.5%에서 10월 초 기준 11.1%로 2.6%p 상승한 상태다.

<그림1>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 (단위 : 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림2> 만기 3년 BBB- 회사채 금리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이자·부채 감당여력 1년새 ‘급락’ ... 2분기 현금흐름보상비율 45.6%로 전년동기대비 43% 낮아져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현금흐름보상비율도 인플레이, 고금리 상황이 반영돼 1년전 보다 급락했다. 대한상의회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897개 제조

업 상장사의 분기별 현금흐름보상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현금흐름보상비율은 45.6%로 작년 2분기 대비 43.8% 감소했다. 이는 영업활동 현금유입이 48.9조원 → 31.2조원으로 36.2% 감소한 반면, 단기차입금은 60.8조원 → 71.4조원으로 17.4% 늘어난 결과다.

< 현금흐름보상비율 (Cash Coverage Ratio) >

- 현금수입으로 이자 및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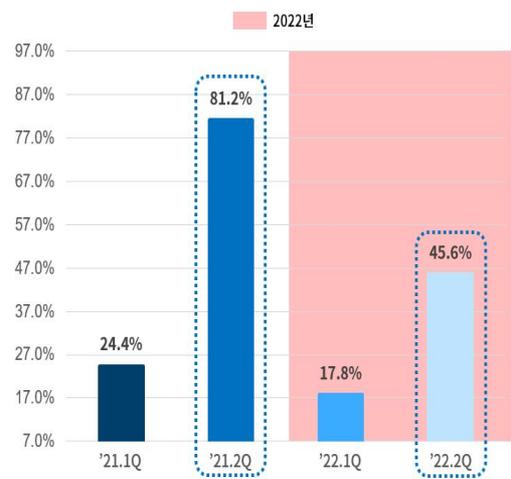
$$\left[ \frac{\text{영업활동현금흐름} + \text{금융비용}}{\text{단기차입금} + \text{금융비용}} \right] \times 100$$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실장은 “매출채권까지 포함시켜 산출되는 이자보상비율에 비해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실제로 지급가능한 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감당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며 “고금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표2> 제조업 상장사 단기채무 현황(단위: 원)

기간	영업활동 현금유입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현금흐름 보상비율 (증감)
21.1Q	14조8,548억	64조1,910억	1조 702억	24.4%
21.2Q	48조9,169억	60조7,768억	2조1,956억	81.2%
22.1Q	10조5,100억	64조4,210억	1조1,486억	17.8% (-27.1%)
22.2Q	31조2,056억	71조3,505억	2조4,849억	45.6% (-43.8%)

<그림3> 현금흐름보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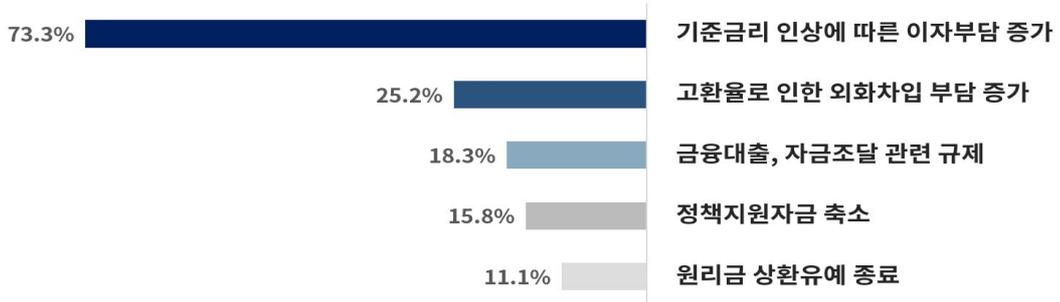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KoDATA 공동

자금운용상 가장 큰 리스크도 ‘대출금리 상승’(73%)이 1위... 외화차입 부담(25%), 금융대출難(18%) 順

자금운용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기업 4곳 중 3곳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73.3%)를 꼽았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차입 부담 증가’ (25.2%), ‘자금조달 관련 규제’ (18.3%)가 뒤를 이었다.<정책지원자금 축소 15.8%,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11.1%, 복수응답>

<그림4> 자금 운용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 (복수응답)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이 같은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매출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제한’ (63.7%), ‘생산비용 증가’ (57.5%), ‘고금리 부담’ (43.6%)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대출한도 초과 7.9%, 대출상환 지연으로 신용등급 하락 3.2%, 복수응답>

**GDP 대비 부채비율, 5년새 22.7%p 증가, 상승속도 두 번째로 빨라 ...**

**상의, “통화정책 조절, 정책금융 확대, 시중금리 안정 및 자금조달 다양화 대책 필요”**

우리기업들의 부채상황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9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의 19위에서 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지난 2017년 92.5%였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5년 사이 코로나 사태와 고비용 경제상황을 거치면서 올해 1분기 115.2%로 22.7%p 증가했고, 이는 비교 대상국 중 2위에 해당하는 증가세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손익분기를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수준이 ‘2.91’ 이었는데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감내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며 “이제는 투자위축을 너머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과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갭을 줄이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08/23(화)~09/05(월)
- 조사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172여개 사
- 조사 방식 : 전화 + 팩스